



#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4/06~2026/04/12]

2026.04.13

## [로봇] 중국과 벌어지는 격차

- 기아차 CID에서 기아차 아틀라스 투입 타임라인 공개. HMG 그룹 출자해 생산 법인도 설립 추진
- IFR, 2024년 로봇 밀도 공개. 한국 1,220대로 전년대비 20% 증가. 중국은 통계 수정으로 순위 급락
- 유니트리 700만원 휴머노이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개시. 애지봇도 A3 대규모 납품 시작

## [방산] 뒷전으로 밀려난 라우 전쟁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핀란드 K-9 112대 추가 수주. K-9은 명실상부 나토 표준 자주포로
- 13일 폴란드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회담. 방산 등 협력 논의 주목
- 록히드마틴, 미 정부와 파트너십 47억 달러 계약. 방공 미사일, MLRS 등 글로벌 미사일 수요 폭발

## [조선] LNGC 시장 업데이트

- 카타르, LNG 시설 재가동 착수. 미국에서는 LNG 수출 FID 임박. 현대상호의 \$255.5M LNGC 수주
- HD한국조선해양 애널리스트 필리핀 야드 투어. 해외 야드 사업 의지 확인
- 캐나다 잠수함 입찰 제안서 수정 기회 부여. 캐나다의 ITB 극대화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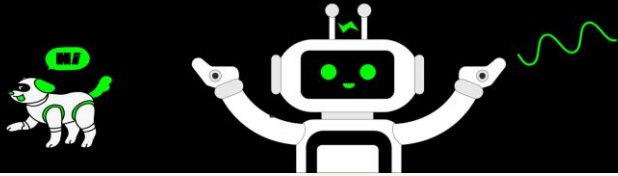
## [항공] 3월 항공 데이터: 강한 환승 수요

- 대한항공,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 출고
- 이란 사태 정상화되어도, 항공유 공급과 가격 정상화까지는 수개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 중동 혼란 속 아시아-유럽 직항 수요 폭발. 항공 운임 3배 급등하기도

## [해운] 美이란 첫 종전 협상 결렬

- 중동 전쟁 2주간 휴전 협정 체결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 수는 극도로 제한
- 美, 중동사태 재보험 프로그램 400억 달러로 확대 및 Chubb 등 보험 파트너 추가
- KSS해운, 국내 해운사 최초로 에어프랑스-KLM 'SAF 프로그램' 참여

#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 Weekly Keyword

### 중국과 벌어지는 격차

서방의 휴머노이드 양산이 요원한 가운데, 중국이 치고 나아가는 중. 현 시점의 중국 휴머노이드와 부품 모두 완성도 높지 않으나, 양산에 따른 가격 하락과 성능 개량 흐름은 유의 필요.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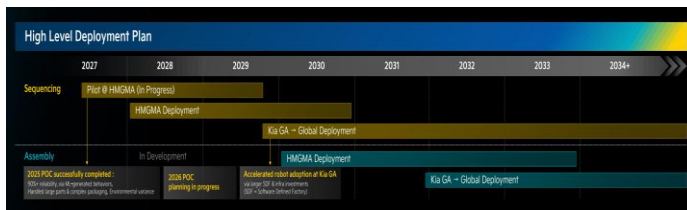


##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21)

### [중국과 벌어지는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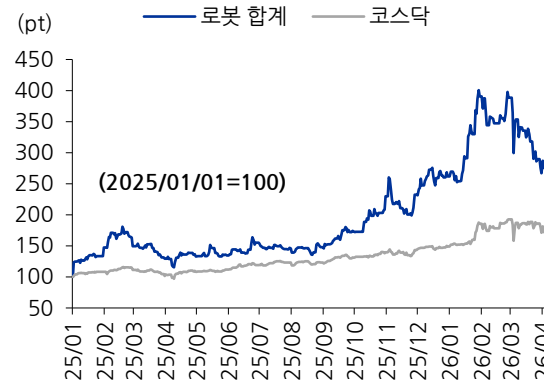
- 기아차 CID에서 보스턴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 타임라인이 재차 공개 되었으나, 기존 안내와 크게 변한 점은 없음. 테슬라의 옵티머스 Gen3도 기존 1Q26 안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서방의 휴머노이드 양산 속도는 중국 대비 뒤쳐지는 모습.
- 중국은 유니트리가 저가형 휴머노이드(약 700만원) R1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개시하고, 애지봇도 휴머노이드 A3의 대규모 납품을 추진 중. 작년 휴머노이드 시장(1.3만대 규모)에서 약 90% 수준의 M/S를 차지한 중국은 올해 10만대 이상 로봇 공급을 계획.
- 당장의 휴머노이드 성능은 떨어질 수 있으나, 부품 생태계가 육성되고 있는 점에 유의. WSJ에 따르면 테슬라도 여전히 중국산 부품을 채용 중. 대량 양산을 통한 압도적 가격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의 높은 요구 수준을 충족하면서 부품 자체의 퀄리티도 개선될 가능성. 한국은 미국의 중국 공급망 견제 정책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

## Key Chart: BD 투입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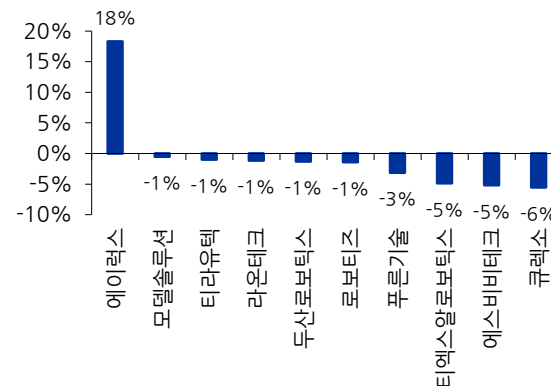


자료: 기아, 유진투자증권

##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 로봇 주요 뉴스(04/06~04/12)

###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제닉스, 국내 최초 70톤급 AGV 로봇 완성 단계

### [휴머노이드]

- 기아 美 공장에 2029년부터 로봇 아틀라스 투입

### [부품/SW/기타]

- 삼성리서치, 로봇 제어 AI '샬로 파이(Shallow-π)' 발표
- 한국피아이엠, 휴머노이드 8mm 초소형 감속기 개발
- 에스피지 "SDD 상반기 양산, 연간 10만 캐파로 대응"
- 에이딘로보틱스,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딥스' 선정

### [Global]

- IFR, 세계 로봇 밀도 공개. 1위는 한국 "1,220대"
- WSJ "美 휴머노이드 중국 부품 없이 못 움직인다"
- 유니트리, 최저가 휴머노이드 로봇 글로벌 출시 임박
- 애지봇, 오픈소스 이기종 데이터 세트 공개
- 애지봇 'A3' 로봇 대여 플랫폼서 대규모 납품 개시
- 애지봇, 최대 100kg 하중 견디는 4족 보행 로봇 공개
- 中 라이트힐AI "로봇 전용 훈련센터 구축"
- 중국 인간형 로봇 올해 10만 대 돌파 전망
- 中 이여우, 年 300만개 휴머노이드 관절 생산공장 건립
- 유비텍, 혼다 자회사와 물류/제조 활용 실증
- 中 디로보틱스, 2,2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 쿠카 "유럽 느려, 미국·아시아로 투자 방향 튼다"
- 日 3월 공작기계 수출 28%↑ "해와·시 건인 사상최대"
- 야스카와, 26FY 영업이익 +27%yoy 증가 전망 제시
- 일본, AI 로봇 전략 발표





## Weekly Keyword

### 뒷전으로 밀려난 러-우 전쟁

이란 사태에 잊혀진 러-우 휴전은 여전히 교착 상태를 유지하며 러-우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중. 러시아는 봄을 맞이하여 공세를 강화 중. 전쟁 지속 능력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유리.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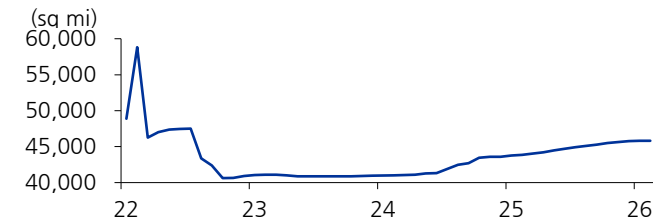


##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69)

### [뒷전으로 밀려난 러-우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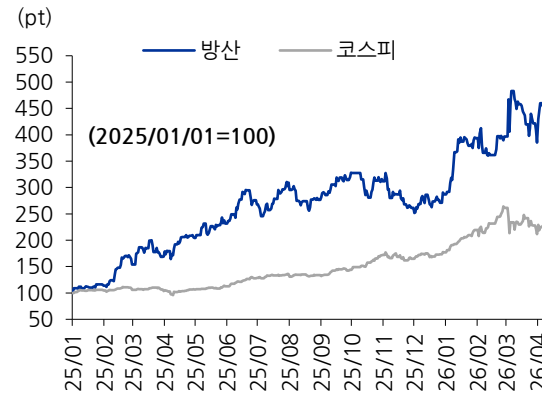
- 2월 17~18일 제네바에 개최된 러-우 휴전 3차 회담이 결렬된 이후(영토 문제), 이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러-우 전쟁 처리는 후순위로 밀려남. 4월 부활절을 맞이해 32시간 휴전을 맞이했으나, 러-우 종전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
- 러-우 양측 모두 공격은 지속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하여 주요 정유 및 에너지 시설, 항만 시설을 타격 중. 러시아도 공습을 비롯해, 봄-여름 공세를 개시하고 있음. 교착 상태 유지.
- 전쟁 지속 능력 측면에서 현재 양상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중. 이란 사태로 유가 급등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 미국은 주요 전력을 중동에 집중. 요격 미사일도 급속도로 소진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여력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 작년 12월 유럽이 지원키로한 900억 유로의 대출금도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유보되어있는 상황.

### Key Chart: 러시아의 우크라 영토 획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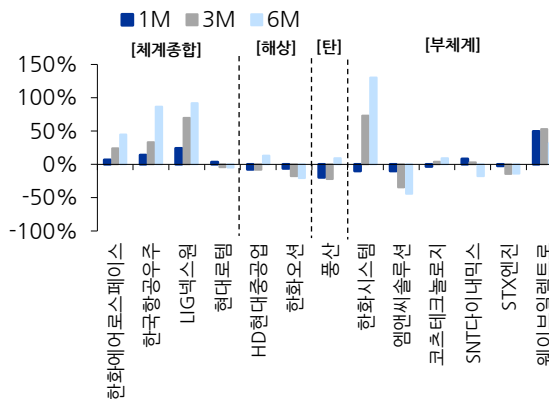


자료: RM, 유진투자증권

##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 방산 주요 뉴스(04/06~04/12)

### [수주/계약]

- 한화에어로, 핀란드에 9,400억 규모 K9 112대 수출
- 인니에 'KF-21 시제기 1대+기술 패키지' 6000억 제공

### [기업별 이슈]

- 한화 방산 3사, 중남미 최대 방산전시회 참가
- 한화에어로, 인드라와 중남미 장갑차 시장 공략
- LIG D&A, 방산 최대 시장에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
- 대한항공, 중고도 경찰용 무인항공기 1호기 출고
- 탄약 빅딜 무산은 풍산의 변심. "노조 최후통첩에 백기"
- 퍼스트 "천궁 구동장치 독점 올 매출도 40% 늘 것"

### [기타]

- 李대통령, 13일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 美, 폴란드 FA-50PL 전투기 AIM-120 미사일 통합 승인
- 강훈식, 원유·나프타 확보 위해 카자흐·오만·사우디행

### [글로벌]

- 미·이란 첫 중전협상 결렬. "핵 포기" vs "과도한 요구"
- 록히드마틴, 47억 달러 패트리엇 계약 수주
- UAE, 프랑스 차세대 라팔 전투기 구매 철회
- 스웨덴, 에스토니아에 대규모 탄약 공장 설립 예정
- 네덜란드, 6.3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도입
- 그리스, 7.5억 달러 규모의 PULS 36대 계약
- 에스토니아, 하이마스 3대 추가 주문
- 佛 30년까지 국방비 390억 달러 증액. 탄약 투자 확대
- 라인메탈,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 가격 부풀리기 의혹
- 불가리아, 독일에서 MARS 3 MLRS 12문 도입



Weekly Keyword

LNG 시장 업데이트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중동 사태 속 미국 LNG 수출 움직임 활발하고, 2026년 연간 LNG 발주 페이스는 나쁘지 않음. 건조 슬롯도 한국과 중국 모두 타이트해지고 있어, 점진적인 선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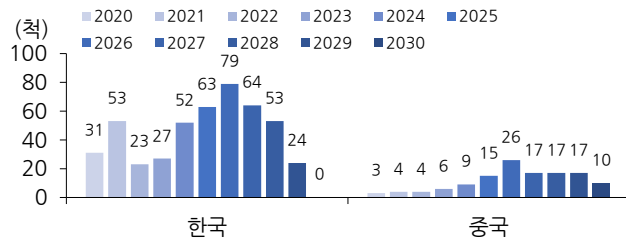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9)

[LNG 시장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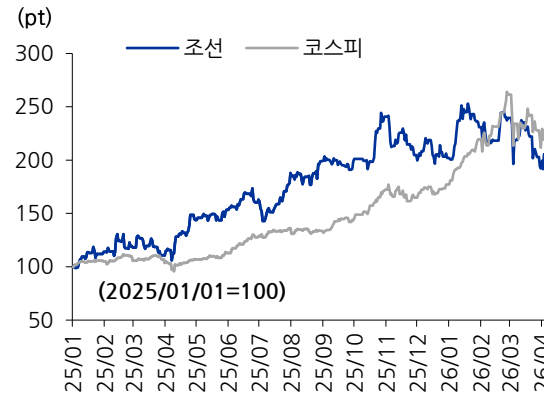
- 중동 사태 속, 미국 LNG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움직임 활발. 3월 미국의 LNG 수출은 1,17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0만톤 증가. 미국 커먼웰스 LNG 프로젝트는 FID가 임박했고, 루이지애나 LNG(델핀)도 송유관 복구 승인 이후 FID 예정이며, 리오그란데 LNG는 공사 속도 향상을 위한 투입 인력 증가 및 야간/주말 근무 승인을 요청.
- 2026년 현재까지 LNG 운반선 발주는 총 37척에 달함(40K+). 이는 2025년 연간 발주 척수와 동일. 전년보다 확실히 빠른 수주 페이스. 올해 발주 선박 중 한국이 22척, 중국이 15척을 수주.
- 한국 조선소들의 29년 슬롯은 벌써 24척이 참. 연간 60~70척 수준의 건조 능력을 고려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건조 슬롯은 타이트해지며 선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참고로 중국은 29년 17척 건조 예정으로 통상 20척 내외의 건조 능력을 고려하면 저가 수주는 더 이상 우려 요인이 아님. 지난 주 HD현대삼호의 Sonagol 항 174k급 LNGC 2척을 \$255.5M에 수주하며, \$250M 수준에서 홍보하던 선가가 상승.

Key Chart: 한국, 중국 LNGC 딜리버리 스케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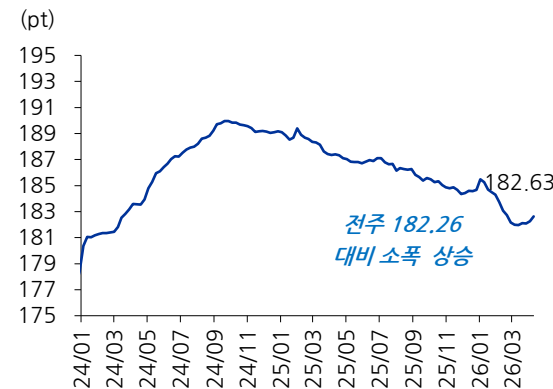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4/06~04/12)

[상선/해양]

- 韓中 수주점유율 39%·53%. 격차 좁혔다
- HD현대삼호 LNGC \$255.5M 2척 수주
- 한화오션 VLCC \$130.5M 2척 수주
- HD현대중, 그리스 비잔틴 마리타임 LPG선 2척 수주
- 에버그린, 한화오션에 24kTEU DF 컨선 6척 발주 예정
- HD현대삼호, 그리스 오션골드로부터 VLGC 2척 수주

[특수선]

- 도산안창호함 美 광 도착. 1만 4,000km 항해 순항
- 캐나다, 잠수함 입찰 제안서 수정 기회 부여

[기타]

- 에틸렌 부족 위기. HD현대중, 수급 대응 '총력'
- 새 주인 나타난 군산조선소 "28년 선박 건조 목표"
- HD현대중,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 성공
- HD현대베트남조선, 280m 길이 부두 건설

[글로벌]

- 125억 달러 규모 커먼웰스 LNG FID 임박
- 美 골든패스 LNG 수출 프로젝트가 가동 단계에 진입
- 미국 LNG 수출 3월 '사상 최대'. 전년 비 240만톤 증가
- 카타르에너지 LNG선 신조 일정 변경 없다
- 카타르, 라스라판 LNG 시설 재가동 작업 착수
- 이란 사태로 탱커 톤마일이 팬데믹 수준을 크게 하회
- MSC, 中 형리중공업에 VLCC 8척, 10억달러 발주
- 나발, 그리스에 블랙소드 바라쿠다 잠수함 제안
- TKMS, 캐나다 리튬 공급망 선점



## Weekly Keyword

### 3월 항공 데이터: 강한 환승 수요

3월 국제선 여객 수는 868만명으로 견조. 특히 중동 사태로 인한 미주/구주 장거리 노선으로의 환승 여객 유입 확대 긍정적. 다만, 고유가 속 비용 부담 및 여객 수요 불확실성은 우려 요인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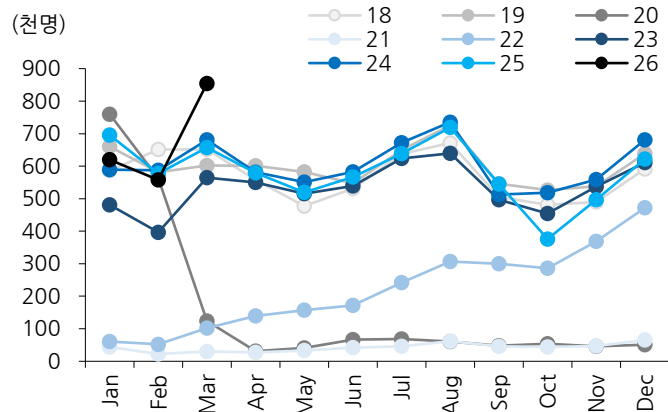


##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9)

### [3월 항공 데이터: 강한 환승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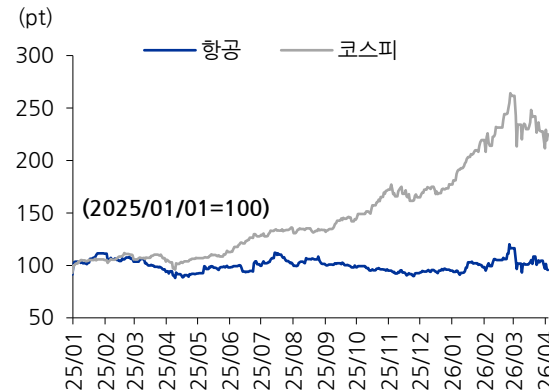
- 3월 전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868만명(+3%mom, +14%yoy)를 기록함. 겨울 성수기의 끝자락인 3월 해외 여행 수요는 견조했음.
- 3월의 특징은 미국(+11%yoy)과 유럽(+22%yoy) 노선의 여객 수가 크게 증가한 점. 이란 사태 속, 중동 공항 운영 차질에 인천공항으로의 수요 전환 효과로 추정됨.
- 환승 여객도 +30%yoy로 크게 증가. 다만, 유가 급등 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항공유 가격 부담과 유류할증료 전가로 인한 여객 수요 하방 압력의 리스크 요인이 더욱 부각되는 구간.

### Key Chart: 인천공항 월별 환승 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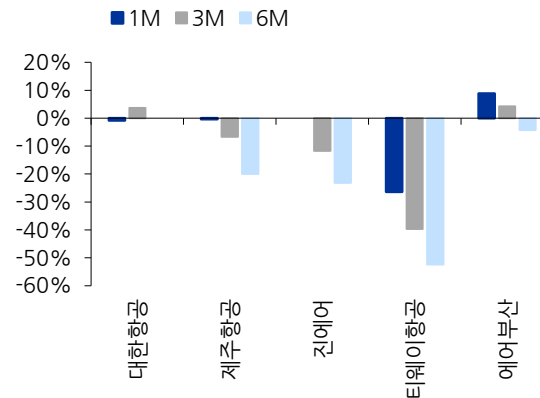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 항공 주요 뉴스(04/06~04/12)

### [여객/화물]

- 1Q L/F 에어로케이 78.7%-에어프레미아 79.8%로 저조
- 대한항공-아시아나,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대폭 인상
- 에어프레미아 "유류할증료 올라도 총 운임 그대로"
- 中 춘추항공, 24일 '청주~상하이 노선' 신규 취항
- 에미레이트항공 부산 진출 본격화. 부산 지점 오픈

###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수순. 합병 후 '서열 제도' 놓고 갈등
- 대한항공, 국내 첫 중고도 청정용 무인항공기 출고
- 이스타항공, 작년 매출 6,301억원 역대 최대
- 에어로케이, '친환경 운항 3단계' 시행
- 파라타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671억 원
- 파라타항공, 'KAEMS'와 정비 협약 MOU 체결
- 파라타항공 "감편은 없다". 4~5월 전 노선 정상운항

### [기타]

- 항공업계 "항공유 공급·가격 정상화 수개월 걸린다"

### [글로벌]

- 미국-이란 '2주 휴전'에 국제유가 급락
- 아시아유럽 직항 항공편 수요 증가 및 운임 급등
- 중국 항공사, 3월도 일본 노선 취소를 50% 육박
- 델타·사우스웨스트도 수하물 요금 인상
- 델타항공, 2분기까지 연료비 20억달러 급증 전망
- 日 피치항공, 중장거리 노선 진출 등 리브랜딩 총력



Weekly Keyword

美-이란 첫 종전 협상 결렬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결렬됨. 4/8 휴전 협정 체결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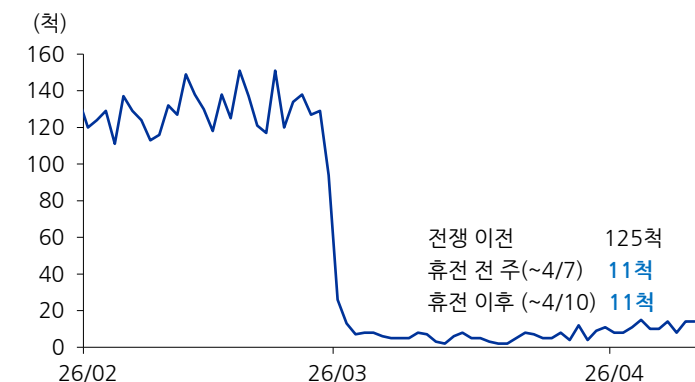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2)

[美-이란 첫 종전 협상 결렬]

- 4/12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결렬됨.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관리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일축하고, 해협 통과 상선에 단독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 4/8 2주간의 휴전 협정이 체결되며 해협 개방 기대가 증가했으나,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한 선박 수는 하루 평균 11척으로 휴전 전 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
- 이란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을 하루 10척으로 제한하고, 통행 선박에 대해 1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 종전이 아닌 휴전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해운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는 단기간 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Key Chart: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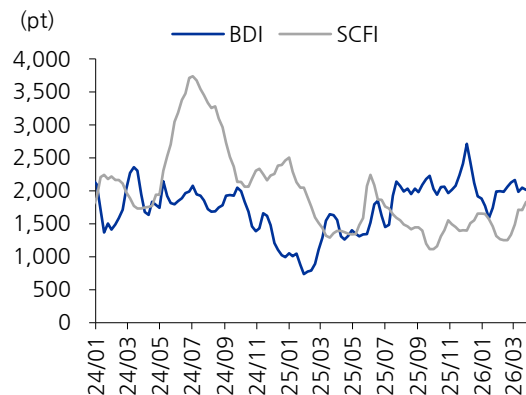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4/06~04/12)

[벌크선]

- 벌크선 시장, S&P 거래량과 자산가치 최고치 기록

[탱커/가스선]

- 휴전 후 中 선박 등 초대형 유조선 3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
- 日 상선미쓰이 LNG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총 3척째
- KSS해운, 에어프랑스-KLM 'SAF 프로그램' 참여
- 중동 에너지 시설 피격, 해운 리스크 '생생 차질'로 확산

[컨테이너선]

-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6,700척 돌파, 사상 최대 성장 기록
- CMA CGM, 이란으로부터 자사 컨선 안전 통항 보장 받아

[기타]

- 중동 전쟁 2주간 휴전, 즉각적인 혼란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휴전 이후에도 호르무즈 여전히 봉쇄, 이란 선박만 통행
- 美-이란 협상 결렬, 호르무즈 재개방 여부 '안갯속'
- 美, 중동사태 재보험 프로그램 400억 달러로 확대
- 해운업계, 지역 긴장 완화에도 비용 정상화 시차 불가피
- 이란,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카드' 제시
- UNCTAD, 호르무즈 봉쇄로 세계 무역 성장을 둔화 예상
- 필리핀 외교부, 이란으로부터 안전 통항 보장받았다고 발표
- 해수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비 보험상황 긴급 점검
- 해수부, 중동 전쟁 위기극복 추경예산 1,448억원으로 확정
- KMI, 그린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체계 구축 시급